

여수시, 오동도 인근 모터보트 전복…실종자 수색

모터보트 전복…4명 구조·1명 수색, 여수시 대응 총력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8일 오전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모터보트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과 탑승자 가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4분경 보트가 뒤집히면서 탑승자 5명(구명조끼 착용)이 바다로 추락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4명은 구조됐으며, 실종된 1명에 대해서는 여수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합동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오동도 관리사무소에서 부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사고 현황과 실종자 수색 상황을 확인하고, 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탑승자 가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실종자 수색 상황과 사고 수습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이어가기 위해 이날 오후 7시 30분 2차 상황판단 회의를 추가로 열어 후속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탑승자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상황 파악과 지원에 나섰다. 현재 해경을 중심으로 사고 해역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도 수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으며 대응하고 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는 가족들이 안정된 환

경에서 수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 현장 주변의 안전 확보와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해 부서별 대응체계도 점검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 원인과 관련한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확인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조된 탑승자들의 안전과 건강 상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여수시, 오동도 인근 사고 상황판단회의 개최 사진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폭염 장기화에 현장 중심 총력 대응 강화

순천시(시장 손훈모)가 폭염이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폭염대응 점검회의 및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 온열질환 감시, 취약계층 보호, 공사장·농작업장 안전관리, 무더위쉼터 운영, 농축수산 피해 예방, 시민 홍보 등 분야별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7일 순천 지역 폭염 중대경보 발령 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해 9개 부서 및 읍면동이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분야별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시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재난도우미를 통한 안부 확인과 무더위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농업·축산·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폭염 상황에 따른 신속한 지원과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광영하수처리장 여과분리막 정밀세정 완료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광영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 총 5억 원을 투입해 생물반응조의 노후 여과분리막 교체와 정밀 세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생물반응조의 여과분리막은 하수처리 공정의 핵심 설비로, 안정적인 처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세정과 노후 분리막 교체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분리막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노후 분리막 교체와 기존 분리막 정밀 세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정비를 마무리했다.

정비 결과 분리막의 성능이 크게 회복되며 세척 전 분리막의 청수투과량은 분당 130~180㎖ 수준이었으나, 물세척과 유기물·무기물 세정을 거친 후 분당 730~88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수투과량은 깨끗한 물(청수)이 분리막을 통과하는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과막의 성능 상태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신품 분리막의 청수투과량이 분당 93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밀 세정을 통해 기존 분리막의 성능이 신품 대비 약 70~80%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정택 광영하수팀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핵심 설비인 분리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정밀 세정을 통해 안정적인 수질 관리와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정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겸면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공모 선정 위해 총력

곡성군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겸면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며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겸면농공단지(2000년 조성돼 현재 10개 업체(근로자 135명)가 입주해 있으며, 철강구조물 제작(용접) 등을 주력으로 하는 농공단지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곡성군은 올해 초부터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겸면농공단지 협의회를 중심으로 입주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와 함께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하고 시설 배치 및 운영 방

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청년 근로자의 이용 편의성과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모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단개발과를 방문해 공모사업 추진 방향과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겸면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지역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곡성군은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공모 선정과 청년 근로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유빈 기자

구례군, 무더위도 잊은 현장 행정 주요사업장 꼼꼼히 점검

구례군(군수 장길선)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주요사업장 1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 군수가 취임 후 첫 실시하는 현장점검으로 군 주요사업의 추진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에는 ▲선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구례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 사업 ▲관광특구 환경 개선, 지초봉 주변 관광명소화 등 관광지원화 사업 ▲위킹촌스데이 in 구례, 로그인하우스 등 근로자 주거확충 사업 ▲봉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섬진강 보도교 설치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군민 생활문화·체육시설인 웰니스 복합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개장한 구레스토어와 세모마켓을 찾아 입점 점포를 둘러보고 입점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장길선 군수는 "현장은 가장 정확한 답을 알려주는 곳"이라며 "주요사업이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개선사항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심선섭 기자

NA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물]